

 금융감독원		보도자료		금융은  하게 소비자는  하게	
보도	2023.11.23.(목) 조간		배포	2023.11.22.(수)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장	김재갑	(02-3145-8050)
		담당자	선임	김민호	(02-3145-8052)
'23.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					

1. 개 요

□ '23.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**0.39%**로 전월말(0.43%) 대비 **0.04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21%) 대비 **0.18%p 상승**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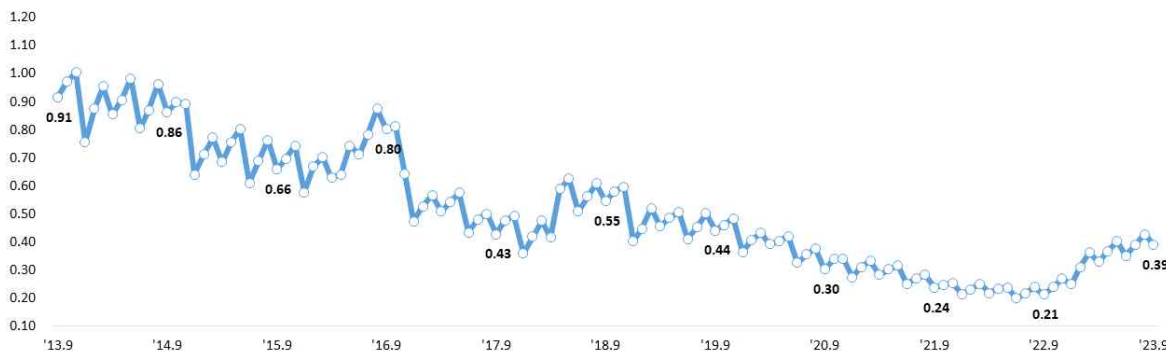
○ '23.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2.2조원)은 전월(2.2조원)과 유사하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*(3.0조원)는 분기말 상·매각 등으로 전월(1.4조원) 대비 **1.6조원 증가**

	('21.9월)	('22.9월)	('23.4월)	('23.5월)	('23.6월)	('23.7월)	('23.8월)	('23.9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0.8	1.1	1.8	2.1	2.0	2.0	2.2	2.2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1.7	1.7	0.9	1.3	3.1	1.1	1.4	3.0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△0.9	△0.6	0.9	0.8	△1.1	0.9	0.8	△0.8

○ '23.9월중 신규연체율('23.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3.8월말 대출잔액)은 **0.10%**로 전월(0.10%)과 유사한 수준* [전년 동월(0.05%) 대비 **0.05%p 상승**]

* 신규연체율(%) : ('22.9) 0.05 → ('23.5) 0.10 → ('23.6) 0.09 → ('23.7) 0.09 → ('23.8) 0.10 → ('23.9) 0.10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□ (기업대출) '23.9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42%)은 전월말(0.47%) 대비 **0.05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23%) 대비 **0.19%p 상승**]

○ 대기업대출 연체율(0.14%)은 전월말(0.13%) 대비 **0.01%p 상승** [전년 동월말(0.05%) 대비 **0.09%p 상승**]

○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49%)은 전월말(0.55%) 대비 **0.06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27%) 대비 **0.22%p 상승**]

- 중소기업인 연체율(0.52%)은 전월말(0.59%) 대비 **0.07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33%) 대비 **0.19%p 상승**]

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46%)은 전월말(0.50%) 대비 **0.04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19%) 대비 **0.27%p 상승**]

□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35%)은 전월말(0.38%) 대비 **0.03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19%) 대비 **0.16%p 상승**]

○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4%)은 전월말(0.24%)과 유사 [전년 동월말(0.12%) 대비 **0.12%p 상승**]

○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65%)은 전월말(0.76%) 대비 **0.11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37%) 대비 **0.28%p 상승**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9월~'23.9월)	'20.9말	'21.9말	'22.9말 (A)	'23.8말 (B)	'23.9말 (C)	증감	
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37	0.30	0.23	0.47	0.42	0.19	△0.05
대기업		0.28	0.28	0.05	0.13	0.14	0.09	0.01
중소기업		0.40	0.30	0.27	0.55	0.49	0.22	△0.06
중소법인		0.53	0.40	0.33	0.59	0.52	0.19	△0.07
개인사업자		0.25	0.19	0.19	0.50	0.46	0.27	△0.04
가계대출		0.22	0.17	0.19	0.38	0.35	0.16	△0.03
주택담보대출		0.16	0.11	0.12	0.24	0.24	0.12	△0.00
가계신용대출등		0.36	0.30	0.37	0.76	0.65	0.28	△0.11
원화대출계		0.30	0.24	0.21	0.43	0.39	0.18	△0.04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'23.9월말 연체율은 분기말 상·매각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하였으나,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은행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
 - 연체·부실채권 정리 확대와 함께 최근 거시경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